

“사회계도 폭넓혀 위상 강화”



김경태(왼쪽에서 세번째)와 마이클 카우프만(왼쪽에서 두번째)이 김경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있다.

東大 불교문화학 ‘다종교사회 불교진로’ 세미나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학연구소)는 미리 배포된 기초발제문에서 각기 독특한 진리체계를 갖고 있는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도전을 받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불교의 진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나 가족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등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불교는 종교적 갈등과 종교편향 시비 등 정부·타종교와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위상강화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국대 불교문화학연구소가 오는 17일 오후 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라는 주제에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다.

美 인터넷전문가 팔만대장경에 감동

게이지·카우프만 등 해인사사 전산화지원 약속

해인사(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해외 인터넷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5일 해인사를 방문한 게이지(美, 전미미시시스템 이사), 마이클 카우프만 등 일행은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성공했다”며 방문 이유를 말하고 “새로운 인터

넷 개발 언어 자바를 사용해 전산화 작업을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대석스님(사무처장)의 안내를 받아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을 둘러보고 고려대장경 연구소를 방문, 자바를 사용해 인터넷 사용 시범을 선보였다.



이상승배·미신·철학등 오해 바로잡아야 종교간 이해·관용토대 상호독립성 인정

김경태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도교나 유교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종교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경태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도교나 유교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종교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경태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도교나 유교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종교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경태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도교나 유교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종교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학술

올진리교 특가스 사건 1년을 맞아 일본의 불교종교학자(대법륜)은 종말 말법 세기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각계 각층의 주장을 다양하게 들어 화제를 모았다. <대법륜> 5월호는 특집으로 ‘종말, 말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문인 7명의 의견과 ‘세기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주제로 각계 각층 30여명의 의견을 모아 현세사의 세기말현상, 나아가 미래의 세기말(冥世)에 대해 고찰하는 미야사카(宮坂)명교수는 ‘세계종교와 과학’에서 각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 정

“전후 50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종교의 측면이 배려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무종교인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장례식의 불필요성 내세우기 등을 내세워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며 불교가 극락과 지옥의 사상을 현대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가인 하나(花輪)씨는 경제의 고도성장 후 남은 병폐의 뿌리는 흠뻑 젖고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체제는 마비되었다고 지적한 후 “경제의 성장으로 영여진 그들의 코와 같은 관료기구는 이제 모순만 산적해 버렸고 그러한

“세기말 현상 불교 자비로 극복”

‘올진리’ 사건 1년 ‘대법륜’ 5월호 말세사상 조명

의를 내린 후 종교와 과학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正)·상(像)·말법(末法)의 삼시(三時)와 우주의 기원을 4등분하고 있는 힌두교의 유가(yuga), 이슬람교의 알라신에 대한 믿음, 개신교의 최후의 종말들은 인간이 이성적인 최고의 경지에서 점차 타락해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관(史觀)으로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의 직설적 사관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 속에서 인류생존의 위기적 상황은 과학과 종교의 모습을 근본부터 뒤바꿔 놓으며 새로운 세기말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조리의 사회속에서 젊은이들은 대의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세기말적 현상을 부처님의 자비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론가 간다(神田)의 주장도 주목을 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은 항상 인간을 우월하게 하며 인간의 역사에서 완전한 자유의 시대는 없다고 하고 말하는 간다씨는 “부처님이 생각하는 상식의 자비야말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와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특성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을 때 세기말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요로운 물질세계를 지향하며 그 한 패턴으로 대표되는 광고홍수시대. 그 현대사회에서 극도의 질 제함과 광장을 요구하는 선정(禪定)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불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르칠 수 있을까. 허우성교수(경희대)는 지난 4월 열린 한국철학회 9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 ‘불교의 실제로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선정은 집착에서 벗어나 사람의 실재성을 향으로 인식해 마음의 청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광고는 선정과 함께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광고문화시대에서 선정을 요구하는 불교인간의 사회적 정립은 가능한 것

“禪, 소비문화 결합 알리는 잣대”

허우성교수 ‘광고 홍수시대 불교역할’ 분석

구원론과 현대: 선정(禪定)과 광고’ 발표를 통해 광고의 성격은 불교의 이념과는 대립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신적 자각이 있기 전까지는 불교의 이념확산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미지 고양을 통해 특정 상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구매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마음과 의식에空的 지령을 사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즉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양 증생은 속인다는 것과 외면적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세계 전체를

인간. 허교수는 한마디로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가 요청될 때까지 불교 이념의 사회적 정립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교의 세속화나 일상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불교대중화는 역경을 이겨내는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불교의 선정과 심해탈이라는 가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현대대중문화가 빠질 수 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을 알려줄 하나의 잣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학 연구 태도 다변화 필요

정병조교수 종교학학회에서 ‘한국불교학’ 강연

해방이후 50년동안의 한국불교의 동향은 어떠했으며, 향후 바람직한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적응방법은 무엇인가. 정병조교수(동국대 도서관장)는 지난 10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한국에서의 불교연구, 그 현실과 과제-해방이후 반세기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불교연구의 내용과 형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나 향후 미래불교의 비전은 불교학연

불교학연구시라고 규정할 정교수는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문제, 출가자의 계율준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불교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적 접근시기로 분류되는 1980년대의 불교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무의미한 교리논쟁에 매달리기 보다는 불교를 현실에 응용하는 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다종교시대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된다고 정교수는

연구원 증원·해석학 방법도입등 제시

구의 새로운 방향정립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불교연구는 뚜렷한 변모를 거쳐왔다는 정교수는 그 첫째시기인 해방이후 60년까지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한 한국 불교학의 재정립기간이었으며,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색을 도외시하고 동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객관성을 잃은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불교는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 시기를 제2의

설명했다. 그러나 불교학연구는 보다 다변화한 연구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정교수는 불교학의 논리적 기반마련을 위한 불교학연구원 설립, 인문대 대학원 석사·박사 집중경향 해소, 불교학의 독립적인 학제적 특색을 도외시하고 동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객관성을 잃은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불교는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 시기를 제2의

천년사찰 순천 향림사 12억원 들여 내년 복원

순천시 삼산동 향림사(도 문화재자료 3호)가 복원된다.

시는 향림사 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경내에서 복원공사 착공식을 갖고 내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백22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삼삼각, 심검당, 명부전을 복원하고 담장보수 및 조경 등 대대적인 주변정화사업 등 천년 사찰의 복원을 위한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향림사는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심의 천년고찰로 지난 9년 화재로 전소됐다.

속초 향성사지3층탑 보수

통과위원회는 높은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이 해체·복원공사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지난 66년 보물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인 향성사지 3층석탑이 최근 지반이 침하되면서 탑 기반부가 내려앉아 붕괴위험이 높다고 보고 연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탑의 해체·복원 공사를 실시기로 했다.

◇기사남처 ‘한국 사찰의 주연’입니다.

btn캠페인 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보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니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깊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불교TV가 불자들에게 한하여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권을 드립니다.

케이블TV신청시 할인권을 제시하면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아파트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설치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권은 96.5.31까지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불교TV ☎(02) 3270-3365로 문의하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공보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서울지역: 경남케이블TV/경남구 518-3000, 경북케이블TV/경북구 4747-115, 경기케이블TV/경기구 3663-1414, 강원케이블TV/강원구 830-8300, 충청케이블TV/충청구 877-5000, 전북케이블TV/전북구 934-3366, 전남케이블TV/전남구 215-0114, 광주케이블TV/광주구 433-2121, 대전케이블TV/대전구 499-6000,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부산케이블TV/부산구 942-0001

서해케이블TV/서해구 365-0101, 서울케이블TV/서울구 525-9892, 울산케이블TV/울산구 318-2700, 인천케이블TV/인천구 418-3000, 강원케이블TV/강원구 388-8000, 충청케이블TV/충청구 877-5000, 전북케이블TV/전북구 934-3366, 전남케이블TV/전남구 215-0114, 광주케이블TV/광주구 433-2121, 대전케이블TV/대전구 499-6000,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부산케이블TV/부산구 942-0001

부산지역: 부산케이블TV/부산구 942-0001, 대구지역: 대구케이블TV/대구구 953-4000, 광주지역: 광주케이블TV/광주구 934-3366,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전구 499-6000, 충북지역: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지역: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광주지역: 광주케이블TV/광주구 934-3366,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전구 499-6000, 충북지역: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지역: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전구 499-6000, 충북지역: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지역: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충북지역: 충북케이블TV/충북구 824-8080, 서울지역: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서울지역: 서울케이블TV/서울구 717-112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

제주지역: 제주케이블TV/제주구 999-5555